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1

[1~3] 다음은 학생 기사를 선별하기 위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면접관 : 지원자는 우리 신문사 학생 기자단에 지원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지원자 : 저는 신문사나 방송국 기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좋은 기사를 많이 써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면접관 : 그렇다면 기자가 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A]
지원자 : 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신문을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스크랩한 기사를 분석하고 그 중에 좋은 기사를 모방하여 새로 기사를 써 보기도 했습니다.
면접관 : 기자는 기사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기사를 쓰기 위해 정보 수집도 해야 하는데요, 지원자에게 이런 [B] 취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원자 : 저는 현재 학교신문을 만드는 동아리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내외의 다양한 행사를 취재하여 기사를 써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관 : 학교신문을 만들며 취재한 경험이 있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취재원을 만나 취재를 할 때 가장 [C]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원자 : 취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원하는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에 대해 취재할 때 ‘오늘 행사 어땠어요?’보다는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종목은 무엇인가요?’처럼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면접관 : 학생 기자로 활동하다 보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활동할 자 [D] 신이 있습니까?
지원자 : 물론 기자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학업에 열중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면접관 : 만약 우리 신문사의 학생 기자가 된다면 어떤 기 [E] 사를 쓰고 싶나요?
지원자 : 고등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싶습니다. 진로 진학 정보라든지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을 취재하여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1. 면접 준비 단계에서 면접관이 고려한 내용 중, 위 면접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기자 모집에 지원한 동기가 뚜렷해야 한다.
- ② 학생 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 ③ 학생 기자로서 취재하고 싶은 분야가 분명해야 한다.
- ④ 일상생활에서 기삿거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 ⑤ 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위 면접의 [A]~[E]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면접에서 질문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면접자가 확인하려는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묻는 ‘폐쇄형 질문’과 피면접자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진술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이 있다. 그리고 피면접자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답할 경우 또는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할 경우에 추가하는 ‘보충 질문’이 있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 <보기>는 지원자가 학생 기자가 되어 취재하는 장면의 일부이다. 위의 면접 상황을 토대로 이를 평가할 때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학생 기자 : 이번 수학 경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평소 수학을 공부할 때 연습과 복습 중 무엇에 더 비중을 두셨습니까?
취재원 : 아무래도 복습을 더 많이 했습니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기자 :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해설을 많이 참고하십니까?
취재원 : 아니요, 저는 웬만하면 해설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해설을 보다 보면 자꾸 의지하게 되어서 혼자서 공부하는 힘이 잘 길러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가급적 해설을 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애씁니다.

- ① 질문을 구체화하여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군.
- ② 신문에서 스크랩하고 분석한 내용을 활용하고 있군.
- ③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있군.
- ④ 지원 동기에서 밝힌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드러나고 있군.
- ⑤ 취재원이 편안하게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군.

[4~5] 다음은 학생회장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우 여러분, 여러분은 휴대전화를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6.9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가 46.3개월인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른 편입니다. 스마트폰이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폐휴대전화의 재활용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량 대비 재활용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가정이나 직장의 책상 서랍에 폐휴대전화를 묵혀 두고 있으며,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휴대전화에는 납, 카드뮴,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땅속에 파묻으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잠시 보시죠. (폐휴대전화에서 금, 은, 구리 등의 귀중한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는 김△△ 박사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준다.) 잘 보셨죠? 이처럼 버려지는 휴대전화 속에는 금속 자원이 들어 있는데, 이를 재활용하지 않으면 귀중한 자원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 학생회 간부들과 모임을 하고 우리 학교 학우들과 함께 ‘폐휴대전화 수거 운동’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때마침 구청에서도 폐휴대전화를 원활하게 모을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수거한 폐휴대전화는 구청에서 처리업체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폐휴대전화를 팔아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우리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모한 내용이다. ㉠~㉤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발표 계획서>

- ▷ 휴대전화의 교체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해야겠군. ㉠
- ▷ 휴대전화 판매량에 비해 폐휴대전화의 재활용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야겠군. ㉡
- ▷ 폐휴대전화의 재활용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학우들에게 알려야겠군. ㉢
- ▷ 폐휴대전화에서 금속 자원을 추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술 부족을 언급해야겠군. ㉣
- ▷ 학우들에게 폐휴대전화 모으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군. ㉤

㉠ ㉠ ㉡ ㉡ ㉢ ㉢ ㉣ ㉣ ㉤ ㉤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였다.
- ② 채지 있는 말을 사용하여 청중들과의 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 ③ 도입부에서 핵심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 ④ 동일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청중들이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 ⑤ 내용의 일부를 도식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청중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6~7] <보기 1>은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관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논설문의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1 >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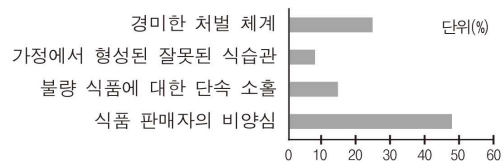
○○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학교 주변 식품 안전 보호구역 지정과 전담 단속 요원 배치, 우수 판매업소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더 확고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돈벌이에 급급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판매 금지 식품을 파는 업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통계 자료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현황

연도	보호구역 지정	전담 단속 요원 수	우수 판매업소 수
2010	9,254	5,525	1,037
2011	9,433	4,809	1,660
2012	9,828	4,554	1,904

2. 어린이 먹을거리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



(다) 인터뷰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행정 기관은 우수 판매업소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판매자들이 인식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량 식품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 체계를 개선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보 기 2 >

○ 서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사고의 실태

○ 본론

1. 문제점 분석

- 가. 판매자의 역할 측면 ㉠
나. 행정 기관의 역할 측면 ㉡
다. 가정의 역할 측면 ㉢

2. 개선 방안 제시

- 가. 판매자의 역할 측면 ㉤
나. 행정 기관의 역할 측면 ㉦
다. 가정의 역할 측면

○ 결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촉구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여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문제라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자세'를 다룬다.
② (나)-1과 (나)-2에서 보호구역 수의 증가에 비해 단속 요원은 줄고 처벌이 경미한 것이 문제라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단속 및 처벌 체계의 미흡'을 다룬다.
③ (나)-2에서 어린이 먹을거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가정에서 비롯된 식습관에도 원인이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가정교육 부실'을 다룬다.
④ (나)-1과 (다)에서 양심적인 판매자에 대한 여러 혜택이 우수 판매업소 증가에 기여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우수 판매업소의 확산 유도' 방안을 다룬다.
⑤ (나)-2와 (다)에서 가벼운 처벌을 악용하는 비양심적인 판매자가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속적 단속 및 단호한 처벌 체계 확립' 방안을 다룬다.

7. <보기 2>의 일부를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조 건 >

○ '본론-2-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주장-근거-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순서로 전개할 것

- ① 자녀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부모의 잘못된 식습관은 곧바로 자녀들의 모방 대상이 된다. 부모들이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으면 자녀들도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게 된다.
②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식습관 형성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가 좋아하는 인스턴트식품은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허용하면서 일주일 식단표를 함께 짜 보는 것이 좋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아이는 조금씩 달라진다.

- ③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불량식품의 유해성을 가르쳐야 한다. 불량식품이 해롭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이가 즐기는 음식 목록을 만들어 유해 성분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 좋다.
④ 가정에서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쳐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 가정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무엇이 나쁜 음식인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⑤ 어떤 맛에 적응된 미각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미각이 안전한 음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리해야 한다. 강렬하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슬로푸드를 밥상에 올려야 한다.

8. <보기>의 항목 중, <체험활동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보고서 작성 시 고려할 점 】

- ㄱ. 체험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한다.
ㄴ. 체험활동의 장소와 목적을 서두에 밝힌다.
ㄷ. 체험활동을 하기 전의 계획이 드러나게 한다.
ㄹ. 체험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제시한다.
ㅁ. 체험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바를 언급한다.

< 체험활동 보고서 >

나는 직업 체험활동을 위해 철도 차량 정비단 본부를 견학하였다. 내 꿈은 기계공학도가 되는 것이므로 이번 체험에서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오전 9시쯤 차량 정비 작업장에 도착하였다. 안내하는 분의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와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차 산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KTX-산천'이 국내 자체 기술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오후에는 정비단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과 인터뷰를 하였다. 그분들은 기차를 정비하는 일이 힘들지만 정비한 차량이 안전하게 달리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기계공학도가 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더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작문 상황: (가)를 읽고, 시청 홈페이지에 ‘역사 문화 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건의하기 위해 (나)를 썼다.

(가) 신문 기사

2014년 6월 XX일

○○시는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역사 문화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의 성공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나)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글쓴이 이은지

제목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에서 역사 문화 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지난 토요일에 역사 동아리반 친구들과 ○○시를 방문했던 학생입니다. ○○시에 가 보니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관광객들도 많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자원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쓰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관리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라 때 창건된 전통 사찰도 얼마 전에 불타 버렸고, 임진왜란 때 왜적들을 물리쳤던 △△ 장군의 생가 복원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존 가치가 높은 고택이나 근대 문화유산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전문 인력과 예산도 많이 확보해 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홍보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역사 문화 홍보관을 만들어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역사 문화 자원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 문화 자원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더 이상 ㉤내버려두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보기>는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활용한 전략이다. (나)에 적용된 것끼리 묶은 것은?

< 보 기 >

- ㄱ. 비유법을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부각한다.
- ㄴ. 화제와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한다.
- ㄷ. 내용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 ㄹ. 통념을 비판함으로써 예상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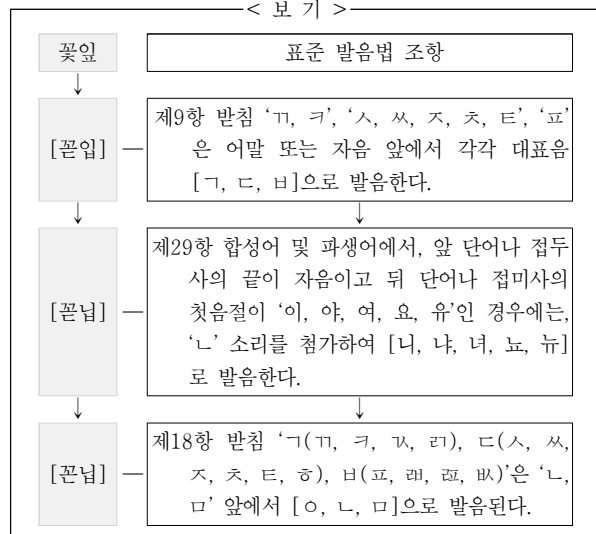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어색하므로 ‘시장님께’ 다음에 ‘급히’라는 부사어를 추가한다.
- ②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므로 ‘생각을 했습니다’로 고친다.
- ③ ㉢은 문단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바꾼다.
- ④ ㉣은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가므로 ‘개발’로 바꾼다.
- ⑤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내버려두거나’를 삭제한다.

11. <보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발음되는 단어는?

< 보 기 >



- ① 못난이[몬나니] ② 부엌문[부영문]
③ 색연필[생년필] ④ 옷맵시[온맵씨]
⑤ 흠이불[훈니불]

1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 대: [I]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음.
[II]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임.
- 테: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쓰임.

< 보 기 2 >

- ㄱ. A: 여보, 승우는 오늘도 야근이래요.
B: 회사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대?
- ㄴ. A: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좋네.
B: 기상 예보를 들었는데 내일부터 다시 덥대.
- ㄷ. A: 너, 혜정이 노래 들은 적 있니?
B: 응, 노래 진짜 잘하데.

- ① ㄱ의 ‘-대’는 ‘승우는 회사에서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군.
- ② ㄱ의 ‘-대’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군.
- ③ ㄴ의 ‘-대’는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는군.
- ④ ㄷ의 ‘-테’는 과거 어느 때 직접 경험한 사실을 현재로 옮겨 와서 말할 때 쓰이는군.
- ⑤ ㄴ의 ‘-대’는 ‘-다고 해’로, ㄷ의 ‘-테’는 ‘-더라’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는군.

13. <보기>는 중의적 표현의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예쁜 영화의 동생이 다가왔다.
- ㄴ. 그는 나보다 음악을 더 좋아한다.
- ㄷ. 영수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 ㄹ. 학생들이 학교에 다 오지 않았다.
- ㅁ. 진우는 새로 산 바지를 입고 있다.

- ① ㄱ: 예쁜 사람이 ‘영화’인지, ‘영화의 동생’인지 알 수 없다.
- ② ㄴ: 비교 대상이 ‘그’와 ‘음악’인지, ‘나’와 ‘음악’인지 불분명하다.
- ③ ㄷ: ‘보고 싶은’의 주체가 ‘영수’인지, ‘친구들’인지 명료하지 않다.
- ④ ㄹ: 학교에 일부의 학생들만 왔는지, 아무도 오지 않았는지의 의미가 모호하다.
- ⑤ ㅁ: 바지를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지, 입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14.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결합하는 어근은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원래의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데, 의미의 변화는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에 따라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양상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형태 변화	의미 변화
+	-
-	+

..... ㉠

..... ㉡

※ ‘+’: 변화 있음. ‘-’: 변화 없음.

- ① ㉠: 상황이 나빠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② ㉠: 사람의 안팎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 ③ ㉠: 우리 집은 오랫동안 마소를 길렀다.
- ④ ㉡: 서너 명이 모여 모듬을 만들었다.
- ⑤ ㉡: 소나무의 꽃은 5월에 핀다.

15.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표현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보 기 >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이 지저분해서 청소하라고 말하고 싶을 때, 엄마가 아들에게 “방 정리 좀 해라.”처럼 명령형 어미 ‘-(아/어)라’를 사용하여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방이 너무 지저분하네.”처럼 평서형 어미 ‘-네’를 사용하여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① (자율학습 시간에 반장이 떠드는 학생에게)
반장: ㉠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되네.
학생: 미안해. 조용히 할게.
- ②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엄마: ㉡ 내일 학교에 안 가니?
아들: 그만하고 잘게요.
- ③ (소나기가 올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 우리 손자 우산 안 가져왔지?
며느리: 제가 우산 들고 마중 갈게요.
- ④ (사장이 실수가 잦은 사원에게)
사장: ㉣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 몇 년이 되었죠?
사원: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 ⑤ (주말에 동생이 언니에게)
동생: ㉤ 뮤지컬 함께 보러 가자.
언니: 내일 시험 있어서 갈 수 없어.

16. 다음을 바탕으로 학생이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孔子 | 曾子^{ㄗㄘ}려 닐려 고평사되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솔흔 父母의 받조은 거시라 敢히 헐워 상히오디 아니홈이 효도의
비르소미오 몸을 세워 道를 行하야 일홈을 後世에 배퍼 뵈 父母를
현더케 흠이 효도의 으뜸이니라

— 『소학언해』(158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공자께서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므로,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
함이 효도의 시작이고, 입신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
이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다.

『소학언해』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

①	曾子 ^{ㄗㄘ} 려	→	현대 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 의 조사가 나타나고 있다.
②	거시라	→	‘-라’가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로 사용되고 있다.
③	상히오디	→	‘-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사동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④	몸을	→	조사 선택에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⑤	흠이	→	현대 국어에서와 같이 끊어적기 표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漢)나라가 번성하던 시절에 유향(劉向)과 반고(班固)가
읽은 책이 대개 13,269권이다. 옛 사람들은 대나무를 편철하
여 책을 만들었으므로 10여 권이라야 지금의 1권에 해당하니
실제로는 수천 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무렵에는 비록 천
하의 책을 다 보는 것이라도 힘이 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후세에 오면서 갈수록 문식(文飾)*이 더욱 승하게 되니, 학문
을 하는 사람은 점차 근본에서 이탈하여 부질없는 말로 서로
다투어 자랑하고, 책에 실린 것이 날마다 더욱 많아졌다. 그래
서 박학(博學)에 힘쓰는 사람 가운데는 밤낮을 더하고 정신을 폐
하며 오직 기록하고 암송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므로 독서를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욱 흩어지고 지식이
넓어질수록 어진 성정은 더욱 황폐해졌다. 아! 공자께서 이른
바 “널리 배우고 많이 들으라.”라고 한 말씀이 어찌 이것을 말
한 것이란 말인가!

나는 여섯 살 때부터 독서할 줄을 알아 이제 30여 년이 되
었다. 대개 일찍이 널리 배우고 많이 듣는 일에 뜻을 두었으나
그 요령을 얻지 못하여 무릇 제자백가, 술수서(術數書)에 패관
잡기(稗官雜記)와 황당무계하고 자질구레하며 불경스러운 이
야기에 이르기까지 마구 읽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옛 것을
상고하는 경전과 세상을 다스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부할 거
를이 없었다. 중도에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비로소 점차로 간
략함을 따랐다. 그러나 총명함이 미치지 못함이 개탄스럽고 나
이가 따르기 어려움을 느꼈다. 매양 곳곳이 얕아서 책을 어루
만질 때마다 멍하게 회한이 남지 않은 적이 없었다.

— 『홍씨 독서록』 서문(序文) 중 일부 —

* 문식(文飾): 글을 아름답게 꾸밈.

17. 윗글의 글쓴이가 조언하는 독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름지기 세상에는 잡다한 책도 많으니 가치 있는 책을 가려서
읽어야 한다.
- ② 책에는 옛 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 종류를 따지지 말고
두루 섭렵해야 한다.
- ③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읽는
지혜부터 길러야 한다.
- ④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글쓴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 ⑤ 책을 읽을 때는 전체를 대강 훑어보지 말고, 행간에 숨은 참
된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인지 활동은 기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유지하는 최초의 기억을 ‘감각기억’이라 한다. 이 기억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세 사라지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단기기억’으로 전이된다. 그리고 단기기억은 암기나 메모 등의 정교화 단계를 거치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장기기억’이 된다. 그리고 장기기억은 다시 감각기억이나 단기기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세 가지 기억은 제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장기기억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음을 의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이 있으며, 후자에는 ‘절차기억’, ‘점화’, ‘조건형성’이 있다. 의미기억은 범주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개념적 지식과 관련된다. 다양한 학술 용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일화기억은 특정 시간간이나 사건에 관한 기억으로, 종종 여러 가지 심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결혼식 날에 자식의 성장 과정을 회상하다가 갓 태어난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순간을 떠올렸다면 이것은 일화기억에 속한다.

절차기억은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주 등과 같이 연습을 통해 습득되는 기술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기술은 수행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능숙하게 발휘된다. 점화는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이 이전 경험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가령 고향 어귀에서 버스를 내리자 예전 고향에서 살던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한다면, 이는 고향에 도착해서 보게 된 나무나 집 등이 단서가 되어 이전의 기억들을 환기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반복된 연합 경험이 기억을 남기는 것을 조건형성이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파블로프의 실험을 들 수 있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리면 개는 종소리와 먹이가 연합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기억은 부호화, 저장, 인출의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부호화 단계는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이고, 저장 단계는 부호화된 정보를 머릿속 저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이다. 인출 단계는 저장된 정보를 꺼내거나 상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중 어느 단계에서든 이상이 생기면 기억 실패 혹은 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질서를 부여하여 효과적으로 부호화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부호화되는 불쾌한 사건이나 흥미로운 사실과 달리, 낯설거나 복잡한 정보를 부호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필기하거나 요약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18. 윗글의 서술 전략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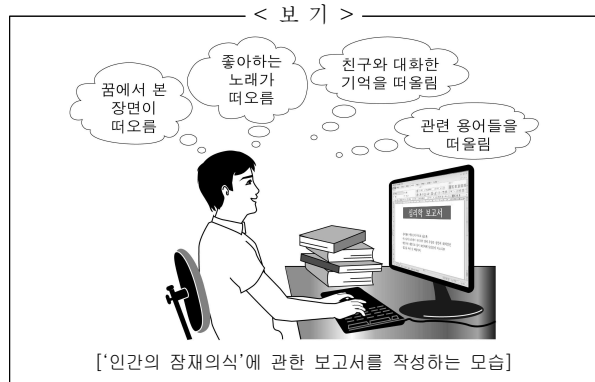
- < 보 기 >
- ㄱ. 화제를 분류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ㄷ. 유추의 방법을 통해 개념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ㄹ. 화제의 여러 의미를 비교하여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감각기억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단기기억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② 기억이 형성되는 단계에 이상이 있으면 기억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불쾌한 사건은 부호화 과정 없이도 자동적으로 머릿속 저장소에 쉽게 저장된다.
 ④ 낯설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⑤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한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보고서를 쓸 때 잠재의식과 관련된 용어들을 떠올리는 것은 ‘의미기억’에 해당한다.
 ② 친구와 보고서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일화기억’에 해당한다.
 ③ 보고서를 쓸 때 자판을 보지 않고도 능숙하게 타자를 치는 것은 ‘절차기억’에 해당한다.
 ④ 관련 서적의 내용이 단서가 되어 꿈에서 본 어떤 장면이 떠오른 것은 ‘점화’에 해당한다.
 ⑤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떠오른 것은 ‘조건형성’에 해당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보(記譜)*에서 음의 높낮이를 정확히 표기하기 위해 5개의 가로줄을 사용하는데 이를 오선이라고 한다. 오선은 아래에서부터 1번 줄, 1번 칸이라 부른다. 음은 대개 알파벳 음이름이나 계명으로 읽는다. C는 도(do), D는 레(re), E는 미(mi), F는 파(fa), G는 솔(sol), A는 라(la), B는 시(si)이다. 일반적으로 피아노 건반은 A0부터 C8까지 88개가 있다. 같은 알파벳이라도 옆의 숫자가 커질수록 옥타브도 올라간다.

오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음은 어떻게 표기할까? 덧줄과 음자리표를 사용하면 된다. 덧줄을 사용하면 오선의 위 또는 아래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그런데 덧줄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자리표를 사용하여 특정한 악기나 인성(人聲)*의 음역을 나타낸다. 음자리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자리표는 음역에 따라 낮은음자리표, 가운음자리표, 높은음자리표로 나뉘는데, 이러한 음자리표는 반드시 오선의 맨 앞에 표기해야 한다.



가장 오래된 음자리표인 낮은음자리표는 C4(가운 도*) 아래의 처음 영역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음자리표는 F3의 자리인 4번 줄에서 시작하여 F의 모양을 변형하여 그린다. 그런 다음 F3의 위치를 기준으로 음표를 표기한다.

가운음자리표는 낮은음자리표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음자리표인데, 오선 상에서 C4를 자유롭게 표기하기 위해 음자리표를 고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오선에 겹쳐 줄을 그은 뒤 C의 모양을 변형하여 중앙 부분만 세로 줄 쪽으로 당겨 오선의 줄에 걸리도록 그린다. C의 중앙 부분이 1번 줄에 걸리면 1번 줄이 C4가 되는데, 이를 인성 소프라노 음자리표라고 부른다. 줄이 하나씩 올라갈수록 인성 메조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음자리표가 된다.

높은음자리표는 가장 나중에 생겼지만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음자리표이다. C4 위의 고음 영역을 표기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한다. 음자리표는 G4의 자리인 2번 줄에서 시작하여 G의 모양을 변형하여 그린다. 음표는 G4의 위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 기보(記譜): 악보를 기록함.

* 인성(人聲): 인간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성악.

* 가운 도: 피아노 건반의 중앙에 자리한 도(do).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보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 ② 음자리표의 기준이 되는 음이름을 소개하였다.
- ③ 문답 방식으로 음자리표의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 ④ 음자리표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드러내었다.
- 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오선의 변화 과정을 다루었다.

22.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자리표는 음이름의 알파벳 모양을 본뜬 것이다.
- ② 음자리표는 악기와 인성의 음역을 고려하여 선택된다.
- ③ 낮은음자리표는 높은음자리표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만들었다.
- ④ 오선 상의 줄과 칸의 알파벳 음이름은 음자리표에 따라 달라진다.
- ⑤ 같은 계명이라도 알파벳 옆의 숫자가 다르면 옥타브가 달라진다.

2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악보에 표기된 음을 바르게 읽은 것은? [3점]



알파벳 음이름

계명

- | | |
|---------------------|---------------|
| ① E3 - G3 - C4 - D4 | 솔 - 시 - 미 - 파 |
| ② E3 - G3 - C4 - D4 | 미 - 솔 - 도 - 레 |
| ③ A3 - C4 - F4 - G4 | 도 - 미 - 라 - 시 |
| ④ A3 - C4 - F4 - G4 | 라 - 도 - 파 - 솔 |
| ⑤ C4 - E4 - A4 - B4 | 도 - 미 - 라 - 시 |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을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상정(想定)하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일관된 선호를 보이며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본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前提)로 경제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반면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감성적인 존재라고 보며, 처한 상황에 따라 선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은 효용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선택을 한다고 본다.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이 가정하는 인간관을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며, 현실에 ㉢실재(實在)하는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행동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휴리스틱'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잘 보여준다. 휴리스틱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주먹구구식의 어렵잡작을 말한다. 휴리스틱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준점 휴리스틱이다. 이것은 외부에서 기준점이 제시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제한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가령 '폭탄 세일! 단, 1인당 5개 이내'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워 한

사람의 구입 한도를 5개로 제한하면 1개를 사려고 했던 소비자도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5라는 숫자가 기준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감정 휴리스틱은 이성 아닌 감성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뜻한다. 수많은 제품에 'new, gold, 프리미엄'과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정 휴리스틱을 활용한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일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때 대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성'으로 설명한다. 손실 회피성은 사람들이 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같더라도, 이익에서 얻는 효용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비효용을 더 크게 생각하여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천 원이 오르거나 내릴 확률이 비슷한 주식에 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천 원을 얻는 만족보다 천 원을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로 인해 사람들은 손실을 능가하는 충분한 이익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㉔ 편향(偏向)된 선택을 한다고 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손실에서 느끼는 불만족은 이익에서 얻는 만족보다 2배 이상 크다고 한다.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 좋은 ㉓ 단서(端緒)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들은 불확실한 일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때 손실 회피성을 보인다.
- ② 휴리스틱은 인간의 경제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 ③ 사람들은 손실보다 이익이 크지 않으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④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여 현실에 실재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 ⑤ 사람들은 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같더라도 손실보다 이익을 2배 이상 크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25. ㉑을 활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신제품에 기존의 제품과 유사한 상표명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제품을 연상하게 하는 경우
- ② 친숙하고 호감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쉽게 수용하게 하는 경우
- ③ 시장에 일찍 진입하여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소비자가 그 업종을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경우
- ④ 정가와 판매가격을 같이 제시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정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판매가격으로 샀다고 느끼게 하는 경우
- ⑤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던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기회를 준 다음에 제품의 구입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

26.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최후통첩 게임’은 두 명의 참여자 A, B가 1회에 한해 돈을 분배하는 게임이다. A가 분배 액수를 제안하고 B가 이를 수용하면, A의 제안에 따라 돈이 분배된다. 하지만 B가 A의 제안을 거절하면 두 사람은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게임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실험한 결과, ㉒ 많은 A들은 상대방에게 최소 40% 이상의 몫을 제안하는 관대함을 보였다. 만약 A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면 B가 거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전부를 차지하려고 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B도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A의 제안을 수용해야 하지만, ㉔ 많은 B들은 20% 이상의 몫을 제안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보다 거절을 선택했다.

- ① ㉒가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존하여 제안을 하는 것은 행동경제학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겠어.
- ②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 ㉔를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 판단할 수 있겠어.
- ③ ㉔는 수용보다 거절을 선택하는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학을 옹호하는 근거가 되겠어.
- ④ 기존의 경제학에서 보면 ㉒는 합리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판단할 수 있겠어.
- ⑤ 40% 이상의 액수를 제안하는 ㉒의 행동은 행동경제학의 입장에서 기존 경제학의 인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겠어.

27. ㉑~㉓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토의할 안건을 회의에 내어 놓음
- ② ㉒: 어떤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③ ㉓: 실제로 존재함
- ④ ㉔: 한쪽으로 치우침
- ⑤ ㉑: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일의 첫 부분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에 녹아 단맛이 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당(糖)’이라 한다. 각종 당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의 기초가 된다. 인류는 주로 과일을 통해 당을 섭취해 왔는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이 보급된 후에는 설탕을 통한 당 섭취가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설탕의 과다 섭취로 인한 유해성이 부각되면서 식품업계는 설탕의 대체재로 액상과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포도당이 주성분인 옥수수 시럽에 효소를 넣으면 포도당 중 일부가 과당으로 전환된다. 이때 만들어진 혼합액을 정제한 것이 액상과당(HFCS)이다. 액상과당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과당의 비율이 55%인 ‘HFCS55’이다. 설탕의 단맛을 1.0이라 할 때 포도당의 단맛은 0.6, 과당의 단맛은 1.7이다. 따라서 액상과당은 적은 양으로도 강한 단맛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액상과당은 많이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포도당과 과당의 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포도당의 대사를 살펴보자. 음식의 당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인슐린과 함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 렙틴(leptin)이 분비된다. 렙틴이 분비되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 그렐린(ghrelin)의 분비는 억제된다. 그렐린의 분비량은 식사 전에는 증가했다가 식사를 하고 나면 렙틴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 한편 과당의 대사는 포도당과는 다르다. 과당은 인슐린과 렙틴의 분비를 촉진하지 않으며, 그 결과 그렐린의 분비량이 줄지 않는다. 게다가 과당은 세포에서 포도당보다 더 쉽게 지방으로 축적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과당의 비율이 높은 액상과당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설탕과 액상과당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1:1로 결합한 구조이다. 반면 액상과당은 과당과 포도당이 각자의 구조를 유지한 채 섞여 있는 혼합액이다. 설탕이 분해되면 50%의 과당이 만들어진다. 과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요즘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는 인공 감미료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복잡한 화학 처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아미노산 계열 감미료이면서 설탕보다 200배나 단맛이 강한 아스파탐, 설탕을 화학 처리하여 설탕보다 600배나 단맛이 강한 수크랄로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인공 감미료도 천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대사 : 생물체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섭취, 소화, 배설하는 일련의 과정.

28.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의문이 아닌 것은?

- ① 설탕과 액상과당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② 액상과당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제조되는가?
- ③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당을 섭취해 왔는가?
- ④ 포도당과 과당의 대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⑤ 설탕과 포도당의 단맛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29. ㉠,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 분비되지 않으면 식사량이 늘어나게 된다.
- ② ㉠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할 때 적게 분비된다.
- ③ ㉠의 분비가 식후에도 줄어들지 않으면 식욕이 떨어진다.
- ④ ㉠의 분비량과 비례하여 ㉡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 ⑤ ㉠과 ㉡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연히 살이 빠진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새로운 음료수를 개발하기 위해 단맛을 내는 재료들의 조합을 연구하여 ‘원재료 및 함량’을 표시해 보았다. 가장 많이 들어간 주재료는 윗줄에, 보조 재료는 아랫줄에 표기하였다.



[A]

[B]

[C]

- ① 화학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재료들로만 구성된 것은 [A]이다.
- ② 천연의 성분이지만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는 조합은 [B]이다.
- ③ 주재료와 보조 재료가 혼합되었을 때, 가장 단맛이 강한 것은 [C]이다.
- ④ 주재료만 놓고 볼 때, 포함된 과당의 양을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해 보면 [B]>[A]=[C]이다.
- ⑤ 보조 재료만 놓고 볼 때, 동일한 양으로 단맛을 높일 수 있는 효율을 비교하면 [A]>[C]>[B]이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래 독,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팔각, 해가, 노루 꼬리 해가 지면 집 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각지, 콩각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파[木瓜]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짓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밝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月暈)」—

* 허방다리: 함정으로 판 구덩이.

* 월훈: 달무리.

(나)

춥다, ㉠ 웅크린 채 서로를 맞대고 있는
집들이 작은 창으로 불씨를 품고 있었다.
가로등은 언덕배기부터 뚜벅뚜벅 걸어와
골목의 담장을 세워주고 지나갔다.
가까이 실뿌리처럼 금이 간
담벼락 위엔 아직 건지 않은 빨래가
바람을 차고 오르내렸다.
나는 미로같이 얽혀 있는 골목을 나와
이정표로 서 있는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샀다.
㉡ 어둠에 익숙한 이 동네에서는
몇 축의 전구로 스스로의 몸에
불을 매달 수 있는 것일까.
점점이 피어난 저 창이 작은 불빛들
불러 모아 ㉢ 허물없이 잔을 돌리고 싶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을 때
나도 ㉣ 누군가에게 건너가는 먼 불빛이었구나.
따스하게 안겨오는 환한 불빛 아래
나는 수수꽃처럼 서서 웃었다.
창밖을 보면 보일러의 연기 따라 별들이
늙은 은행나무 가지 사이마다 내려와
㉤ 불씨 하나씩 달고 있었다.

— 윤성택, 「산동네의 밤」—

3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행의 종결에 변화를 주어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축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대화체, (나)는 독백체의 어조를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⑤ (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32. (가)를 영상물로 제작하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 ① 1연: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산촌 사람의 뒷모습을 화자가 멀찍이 강기슭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담아낸다.
- ② 2연: 봉당에 불을 환하게 밝힌 집에 노루가 찾아들고, 창문에 불빛이 비치는 장면을 보여 준다.
- ③ 3연: 바람이 부는 날에 처마에서 날아오르는 한 무리의 새떼를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다.
- ④ 4연: 노인의 힘없는 기침소리가 그치고 난 뒤, 귀뚜라미 때의 울음소리를 점점 크게 들리게 한다.
- ⑤ 5연: 눈 내리는 적막한 새벽녘에 창호지 문살 사이로 여명이 밝아오는 장면을 묘사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시는 의미 구조상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부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부분, 깨달음을 바탕으로 시적 공간을 재인식하는 부분 등이다.

- ① ㉠에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인 산동네의 정경이 드러난다.
- ② ㉡에는 산동네에서의 생활을 익숙하게 받아들여 안주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③ ㉢에는 산동네 사람들을 향한 화자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④ ㉣에는 자신을 타인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새로운 시선으로 산동네에서 희망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아버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둘 남아 있다.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영정으로 쓸 사진이 없어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을 떼어 확대해 만든 **틀사진**이다. 내가 그 틀사진을 두고 이렇게 묘사했을 때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즉 선택적이었다는 애기가 된다.

[A] 그 틀사진은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던 흑백 증명사진을 부랴사라 확대하여 마련한지라 전체적으로 우중충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윤곽마저 희미하게 어둡거려 마치 급조된 몽타주 속의 인물을 연상시켰다. 조촐한 공간 속에 간헐 건성드뭇한 대머리를 인 채 움푹 꺼져 대꾸한 눈자위로 방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는 무엇에 놀랐는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어깨까지 한껏 굽송그리고 있어 방금 염병을 앓고 난 이 같았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아버지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것눌린 삶의 표정을 지닌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거의 무능했으며 당신의 운명을 휘감아둔 그 바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도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이었다. 나는 이것이 아버지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지 않은가.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사진은 아닐 것이다. 누렇게 바랜 선거 벽보였으니까. 그 안의 아버지는 유권자를 향해 환히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은 온화했고 사명감에 차 있었으며 벗겨진 대머리는 어떤 의지에 찬 자신감의 표현인 듯싶었다. 아버지의 이 두 모습은 도무지 하나로 겹쳐질 수 없는 불가해성을 지닌 것들이었다.

(중략)

마침내 아버지 차례가 되었다. 나는 막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뭐? 아, 예. 마지막으로 기호 십이 번 김홍수 후보의 유세가 있겠습니다.”

[B] 아버지는 단상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마이크에서는 잡음이 울려왔다. 유세가 다 끝난 걸로 친 진행요원들이 책상을 끄는 소리, 서로 소리쳐 부르는 소리, 영감님 그만 내려오세요 하며 저희들끼리 킁킁거리며 농담하는 소리 등 이 한데 뒤섞여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대목을 놓친 젊은 번데기 장수가 갑자기 허탈하게 하늘을 보고 웃더니 공친 화풀이를 아버지에게 하려는 듯 손나발을 입가에 붙이고 야유를 하기 시작했다.

“우우우 에에에에.”

아버지가 단 한마디, “여러분” 하는 말조차 제대로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군 채 연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얼른 비쳤다. 나는 진흙탕밭을 가로질러 아버지에게 마구 달려가고 싶었다. 그러곤 땀박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가 아니었다. 나는 번데기 장수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야, 이 ××!”

“뭐 ××? 어디서 굴러온 개똥다귀야!”

나는 럭비 선수처럼 몸을 던져 그의 허리를 휘감아 쓰러뜨렸다.

“너 잘 만났다. 그러잖아도 몸이 구석구석 근절거리던 참이었는데, 어디서 비리비리한 놈이 매감을 자처하고 달려드니 오죽이나 잘 됐다.”

번데기 장수와 난 진흙탕에서 개처럼 끌어안고 뒹굴었다. 아버지가 달려오고 사람들이 뒤따라와 뜰어말리는 바람에 싸움은 좀 싱겁게 끝났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도 내 얼굴은 영

망진창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내가 하도 악을 쓰며 달려 들어서 그런지 그 번데기 장수도 어지간히 맞았던 모양이었다.

개표 날이 다가왔다.

나는 개표장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꼬다케 밤을 새우며 아버지의 표수를 점검했다. 그리고는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모두 삼백일흔다섯 표를 얻었다. 내 골방에는 아버지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이불자락을 살며시 떠들친 다음 고양이처럼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둘은 점심 무렵까지 죽은 듯이 꿀아떨어졌다.

그 다음날 아버지와 난 까귀와 풀끼알 파위를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헤매고 다녔다. 선거 벽보가 붙은 골목마다 찾아다니며 기호 십이 번 포스터를 긁어내는 작업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아버지의 눈두덩은 퐁퐁 부어 있었다. 아버지는 당신의 **득표수**를 알려 하지 않았다. 나도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우리 두 부자는 중간에 호빵을 두 개씩 깨물어가며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했다.

“아버지 속이 후련하세요? 왜 두고두고 벽보가 저절로 닳아 없어질 때까지 보시지 그러세요?”

“무스거 소리네? 끔찍하게소리, 말도 안 되지.”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아주 숫지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더니 내게 당신 똥의 호빵을 하나 불쑥 내미는 거였다.

“여전히 알 수가 없구만, 찹찹, 민세야 어제 아주 **좋은 꿈**이래 꿔왔잖니?”

“어떤 거요?”

“귀인을 만났더라고.”

“뭐라든가요? 귀인이?”

“이곳 남쪽엔 없는 사람이야. 헤어진 지 삼십 년이 넘었지. 겨울바람 불어오는 쪽에 살아 있잖지 아마? 얼굴이 많이 두 변했더구나. 근데 왜 날더러 그리로 오라고 허길 않았을까? 이쪽 인연이 다하거든 만나자고 허는 걸 보든 이미 혼백이 다 된 사람인가 어떤가? 죽어서나 만나자는 거겠지.”

난 그 귀인이 누굴 말하는지 곧 눈치를 챌 수 있었다. 바로 아버지가 북에 두고 내려온 사람들일 터였다. 아버지는 계속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나는 벽보 벗기기 작업을 하는 순간만큼은 아버지에게 대해서 뭔가를 어렵듯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아마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블랙홀처럼 주변을 휘감아온 **당신의 운명**과 어떤 식으로든지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맞닥뜨려 대결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아울러 그런 애비의 모습을 아들인 내게 단 한 번이나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아무튼 그 대결의 끝이 아무리 참담할지라도 그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몫이었다. 그래서 그런가, 나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삶이 자꾸 버거워질 때마다 그 **벽보 속의 아버지**를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 김소진, 「두 장의 사진으로 남은 아버지」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하게 장면이 전환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② 간결한 문체를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회상을 통하여 인물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관찰하여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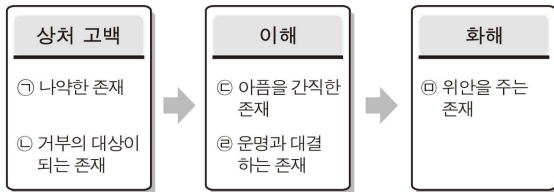
35.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깔려 있다.
- ② [B]는 서술자의 심리 상태를 내적 독백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대상을 객관적인 태도로, [B]는 주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고, [B]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 [B]는 모두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소진 소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고백 → 아버지에게 대한 이해 → 아버지와의 화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각 단계마다 ‘나’가 아버지의 의미를 다르게 인식하는데, 이것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① ㉠: ‘나’는 ‘틀자진’ 속 아버지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나약한 인물로 바라보고 있군.
- ② ㉡: ‘나’는 아버지에게 ‘득표수’를 알려주지 않을 만큼 아버지를 거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군.
- ③ ㉢: ‘나’는 아버지의 ‘좋은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지닌 존재로 여기고 있군.
- ④ ㉣: ‘나’는 아버지가 선거에 출마한 것이 ‘당신의 운명’과 맞서려고 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군.
- ⑤ ㉤: ‘나’가 힘들 때마다 ‘벽보 속의 아버지’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위안을 주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뽕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운노다 흥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흥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늬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긔 물긔의 슬긔지 노니노라
그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틀 줄이 이시라.

<제2수>

잔들고 혼자 안자 댤 뉘 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묻내 도하 흥노라.

<제3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랴실샤
인간만수(人間萬事)를 흥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득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흥시도다.

<제5수>

- 윤선도, 「만흥(漫興)」-

* 하얌: 시골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37. 윗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에 변화를 주어 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 ② 점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 ③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대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의 시구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38. [A]에서 댤 뉘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족감을 주는 친화적 공간이다.
- ② 인격 수양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 ③ 살아온 지난 삶을 반성하는 공간이다.
- ④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공간이다.
- ⑤ 유교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전라도 해남에 은거할 때 지은 연시조이다. 작가는 혼탁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적들로부터 술하게 탄핵과 모함을 받아 수십 년 간이나 유배와 낙향을 반복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작가는 은둔의 삶을 추구하면서 순 우리말을 잘 살린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 ① 작가가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뽕집’과 ‘보리밥 풋늬물’에서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늙들’에는 작가를 탄핵하고 모함했던 정적들이 포함될 수 있겠군.
- ③ 작가가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면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져 ‘하얌’ 같은 존재가 되었겠군.
- ④ ‘알마초’, ‘슬긔지’ 등과 같은 순 우리말을 잘 살린 작품이군.
- ⑤ ‘녀나쁜 일’은 당시의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이겠군.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하가 버글거리며 온통 이익을 위하여 오고 이익을 위하여 간다. 세상이 이익을 숭상함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익 때문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익을 말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이익을 위하여 죽기까지 한다.

서울은 장인바치와 장사치들이 모이는 곳이다. 가게들에 수많은 물품들이 별처럼 벌여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 있다. 남에게 손과 손가락을 파는 사람이 있고, 어깨와 등을 파는 사람도 있고, 뒷간 치는 사람도 있고, 칼을 갈아서 소 잡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꾸며 몸을 파는 사람도 있으니, ㉠ 세상에서 사고 파는 것이 이처럼 극도에 달하고 있다.

외사씨(外史氏)*는 말한다.

“별거숭이 나라에는 실과 비단을 파는 저자가 없고, 산 짐승을 잡아 날고기로 먹던 시대에는 술을 팔지 않았다. 수요가 있어야만 파는 자가 생기는 것이다. 큰 대장장이의 문 앞에서는 칼이나 망치를 선전하지 못하고, 힘써 농사짓는 집에는 쌀 행상이 지나가면서도 소리치지 않는다. 자기에게 없는 다 음에라야 남에게서 구하는 것이다.”

(나) 류광억(柳光億)은 영남 함천군 사람이다. 시를 대강 할 줄 알았으며 과체(科體)*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 소문이 났으나, 그의 집이 가난하고 지체는 미천하였다. 그 당시 시골에서는 과거 글을 팔아 생계를 삼는 자가 많았는데, 광억도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일찍이 영남 향시(鄉試)에 합격하여 장차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데, 부인들이 타는 수레로 길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당도해 보니 붉은 문이 여러 겹이고 화려한 집이 수십 채인데, ㉡ 얼굴이 희고 수염이 성긴 서사꾼* 몇 사람이 바야흐로 종이를 펼쳐 놓고 광억이 글을 쓰면 깨끗하게 옮겨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광억에게는 그 집 안채에 숙소를 정해 두고 매일 다섯 번 진수성찬을 바치며, ㉢ 주인이 서너 번씩 광억을 보러 와서 공경하였는데, 마치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듯하였다. 이윽고 주인의 아들이 과거를 치렀는데 예상대로 광억의 글로 진사에 올랐다. 이에 주인은 광억에게 말 한 필과 종 한 사람을 주어 집으로 보냈다. ㉣ 이후 이만 냥을 가지고 광억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가 빌렸던 고을의 환곡(還穀)을 미리 갚은 감사(監司)도 있었다.

광억의 문사(文詞)는 격이 별로 높은 것이 아니고, 다만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 장기인데, 이로써 과거 글에 득의하였던 것이다. 광억은 이미 늙었는데도 나라 안에 더욱 소문이 났다.

경시관(京試官)*이 감사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영남의 인재 가운데 누가 제일입니까?”

감사가 답하였다.

“류광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반드시 장원으로 뽑겠소.”

“당신이 그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서로 논란하다가 광억의 글을 알아내느냐, 못하느냐로 내기를 하게 되었다. 경시관이 이윽고 과장에 올라 시제(詩題)를 내는데 ‘영남 시월에 중구회(重九會)를 여니,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같지 않음을 탄식한다.’라는 것이었다. 조금 있다가 답안 하나가 들어 왔는데 그 글에,

중앙절 놀이가 또한 증읍달에 펼쳐지니,
북쪽에서 오신 손 남쪽 데운 술 억지로 먹고 취하였네.

라고 하였다. 시관이 그것을 읽고 말하였다.

“이것은 광억의 솜씨가 틀림없다.”

주목(朱墨)으로 비점(批點)을 마구 쳐서 이하(二下)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어떤 답안이 있어 자못 작법에 합치되므로 이등으로 하였고, 또 한 답안을 얻어 삼등으로 삼았는데, 봉한 부분을 떼어보니 광억의 이름은 없었다. 몰래 조사해 보니 모두 광억이 ㉤ 남이 건넨 돈의 많고 적음을 가려 선후를 차등 있게 한 것이었다. 시관은 그 사실을 알았으나, 감사가 글을 보는 자신의 안목을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광억의 공초(供招)*를 얻어 증거로 삼으려고 함천군에 이관(移關)하여 광억을 잡아서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상 ㉥ 옥사(獄事)를 일으킬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광억이 군수에게 잡혀 장차 압송되기 직전에 지레 두려워하면서, ‘나는 과적(科賊)이라, 가더라도 역시 죽을 것이니, 가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여겨, 밤에 친척들과 더불어 마음껏 술을 마시고 이내 몰래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시관은 이를 듣고 애석해 하였다. 광억의 재능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군자는 “광억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

(다) 매화외사(梅花外史)*는 말한다.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이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는 자도 있고, 미세한 터럭과 형체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팔 수 있으나 아직 그 마음을 파는 자는 있지 않았다.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류광억과 같은 자는 그 마음까지 팔아버린 자가 아닌가? 아! 누가 알았으랴, 천하의 파는 것 중에서 지극히 천한 매매를 글 읽는 자가 하였다는 사실을. 법전(法典)에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죄가 같다.’라고 하였다.”

— 이옥, 「류광억전(柳光億傳)」—

* 외사씨(外史氏), 매화외사(梅花外史): 작가 이옥의 별호.

* 과체(科體): 조선 시대에 과거를 볼 때 사용하던 문체.

* 서사꾼: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경시관(京試官): 서울에서 파견된 시험관.

* 공초(供招): 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또는 진술서.

4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② 요약적 진술을 사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를 삽입하여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서술의 시점을 달리하여 사건의 입체성을 살리고 있다.
- ⑤ 대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41. ㉠~㉣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 사회 전반에 잇속을 좇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 ② ㉡: 과거 부정행위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 ③ ㉢: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광억에게 청탁을 하였다.
- ④ ㉣: 답안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파체에 능했다.
- ⑤ ㉤: 경시관은 광억에게 청탁한 인물들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傳)은 한 인물의 일생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서사 양식이다. 주인공은 주로 유교적 덕목을 실현하는 존재로 한정되었다가 신선, 도인, 예술가, 패륜자 등으로 확장된다. 전의 구조는 초기에 '도입-전개-논평'의 단계로 정형화되어 있었다. 도입부에서 인물의 가계나 성장 과정을 제시하고, 전개부에서 인물의 업적이나 잘못을 열거하며, 논평부에서 저자의 견해, 평가, 교훈 등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변형된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 ① (가)에 논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전의 구조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는 주인공의 집안 내력과 성장 환경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입부에 해당한다.
- ③ (나)는 주인공의 그릇된 행위를 몇 개의 사건을 들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개부에 해당한다.
- ④ (나)에서 부도덕한 주인공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전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 ⑤ (다)는 주인공의 옳고 그름을 따져 부정을 일삼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논평부에 해당한다.

43. 밑줄에 나타난 주인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도 모르는군.
- ②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군.
- ③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른 격이군.
- ④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군.
- 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영판 그렇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바닷가 마을에 살던 해수는 남편 성구가 바다에서 죽자 시어머니의 배려로 같은 마을에 살던 상수를 따라 산에서 살게 된다.

S#152. 성철의 집

머리에 수건을 땀 어머니가 허탈하게 앉았고 성철은 마당에 돛을 내놓고 손질하고 있다.

어머니 에이그…… 그 돛은 와 만지노…… 너는 배타지 마라!

성 철 바닷놈이 배 안 타고 뭇 탈 깎니까…….

어머니 이젠 바다가 무서워서 안 카나…… 이러다간 대가 끊기겠다…… 네 형수만 있어도 좋으련만…….

성 철 형수 걱정은 마소…… 상수도 형수를 끔찍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숨을 쉬는 어머니

S#153. 토담집 앞(밤)

모닥불이 타오른다. 가마니를 깔고 상 없이 밥을 먹고 있는 해수와 상수.

상 수 그렇게 바다가 보고 싶나?

해 순 …….

약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상 수 잊어버려라! 성구를 삼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삼켜 버린 곳이 바다가 아냐…… 잊어버려. 우린 산에서 사는 거다…… 아무도 없는 데서 단둘이서 말야…….

해 순 잊으려 하면 생각이 더 납니다…… 시어머니도 보고 싶고요…….

상 수 걱정할 것 없다. 또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철이도 배를 타는데…….

해 순 (향수에 젖어) …… 수수밭에 가면 수숫대가 모두 미역발 같고…… 콩밭에 가면 콩밭이 원통 바다로 안 보이는교…….

상 수 …….

어처구니없는 듯하면서도 지극히 동정적인 모습으로 해수를 본다.

해 순 (울먹거리며) 바람 소리가 파도 소리로 들리는 기라에…… 오늘 낮에도 바다가 보고 싶어 산에 올라갔습디더…… 갈매기 소리는 들리는데 바다는 안 보입디더…….

상 수 그만두자아…… 해순이…….

조용히 해순이를 감싸 안으면서

상 수 잊자! 잊어버리고 나랑 단둘이서 살자.

【중략 줄거리】 상수는 해수를 괴롭히던 채석장 관리인을 쫓아 가다가 밭을 헐디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다.

S#168. 무덤(비)

한결 세어진 빗줄기. 비를 맞으며 상수를 어루만지는 해수— 급기야 상수의 시체를 밀어 넣는다. 행여 빗물에 잠길세라 마구 흙을 덮는 해수. 빗발이 더욱더 세어지고— 해수의 옷이 젖

는다. 흙을 덮어 놓은 해순은 그 자리를 밟는다(봉분을 만들 수는 없다). 누런 황토를 밟는 해순의 발- 빗물에 범벅이 된 황토는 해순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듯이 수렁이 된다. 빗물에 젖은 해순의 몸은 나신이나 다름없다. 마구 우는 해순이지만 그 소리는 요란한 비바람 속에 잠겼음인지 들리지 않는다.

S#169. 산길(비)

해순이가 비를 맞고 걷는다. 은은히 들려오는 '과부 타령'의 허밍 코러스*.

S#170. 산꼭대기(비)

올라서는 바위에 앉는다. 들려오는 허밍 코러스의 과부 타령. 비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친다. 들리는 파도 소리. 거품을 물고 일어 오는 파도의 환청. 해순은 귀를 막고 아우성친다. 소리는 안 들린다. 더욱더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 해순은 조용히 일어서서 산을 내려온다. O. L.

S#171. 들길

보통이를 옆에 끼고 걷는 해순. 바다를 찾아가는 것이다.

— 신봉승 각색, 오영수 원작, 「갯마을」—

* 허밍 코러스: 민요의 후창처럼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것.

4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수는 해순과 산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
- ② 성철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 ③ 해순은 산에서도 바다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 ④ 해순은 상수가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 한다.
- ⑤ 어머니는 성철이 바다에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45. 윗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각 장면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152: 성철의 마지막 대사는 어머니의 상심을 달래려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한다.
- ② S#153: 해순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에서는 상수를 의식하는 표정으로 연기한다.
- ③ S#153: 해순을 바라보는 상수의 시선을 통해 상수의 복합적인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한다.
- ④ S#168: 해순이 흙을 밟는 모습에서는 상수를 잃은 슬픔을 견디고 일어서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⑤ S#168: 해순이 오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울음소리는 강한 비바람 소리에 묻히게 하여 해순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